경주 흥륜사지서 황룡사 버금 '대형 금당지' 확인

시,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석탑지·회랑 등 성과 공개
'신라의 미소' 출토 흥륜사서 '영묘사' 명문 기와 발굴
2중 기단 차양칸 갖춘 보기드문 금당지 구조 눈길


경주 흥륜사지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대형 금당지.

경주 오릉 서북쪽지역에서 신라 최고의 사찰 황룡사 금당지에 버금가는 금당지가 확인돼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경주시는 '영묘사(靈廟寺)' 명문이 적힌 기와가 출토되면서 사찰명이 밝혀진 흥륜사지의 발굴조사에서 대형 금당지 등이 확인된 성과를 26일 현장설명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주시 사정동 285-6번지 일대 발굴현장에서 26일 오전 11시 경주 황룡사의 금당과 견줄만한 규모의 2중 기단에 차양칸을 갖춘 '대형 금당지'와 석탑지, 회랑지 등의 발굴 성과를 공개한다.

경주 흥륜사는 과거 '신라의 미소'로 불리며 보물로 지정된 수막새가 출토된 사찰이다. 또 최근 발굴조사에서 '영묘지사(靈廟之寺)', '영묘사(靈廟寺)' 등의 명문 기와가 출토되면서 현재의 흥륜사는 선덕여왕 4년인 635년에 창건된 영묘사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또 지난해 흥륜사지 서쪽 하수관로 설치 공사 관련 발굴 조사에서 다량의 고려시대 청동공양구(靑銅供養具)가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된 금당의 기단이 드러났다. 상·하층의 2중 기단과 내·외진을 갖춘 직사각형의 대형 건물구조로 확인됐다.

2중 기단에 차양칸을 갖춘 금당은 경주에서는 황룡사 중금당(584년), 사천왕사 금당(679년)을 제외하고는 확인된 사례가 없을 만큼 경주에서 보기 드문 구조로 신라 사찰 금당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사 결과 금당 건물은 적어도 3단계 이상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창건기인 삼국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당지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연화문 수막새로 보아 그 존재가 짐작되며 금당 앞 폐와무지에서는 삼국시대 말~통일신라시대 초에 사용된 연화문 곱새기와가 출토돼 삼국시대에 이미 금당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금당지 내부에서 확인된 내진 성토층은 기단석에서 초석까지 높이가 230cm로, 황룡사 중금당의 기단 높이인 110cm에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단을 갖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발굴 조사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새롭게 조성된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새 명소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 탄생

스토리광장·역사의 샘 등 조성
도로명 '보문→한국관광1번로'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새로운 관광 명소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이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국내 최초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경북 관광 50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만든 공간이다.

위치는 보문관광단지 내 세계자동차박물관 옆이다. 5천343㎡ 부지에 보문관광단지 개발 역사와 도내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한 '스토리 광장', 산책로인 '역사의 다리'와 '역사의 샘', 보문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인 '도약의 링'으로 조성됐다. 사업은 2년간 50억 원을 투입했고 공사를 맡은 아이에스동서(1억 원)와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1억1천200만 원)는 기부로 공원 조성을 응원했다.

새 관광명소 조성에 맞춰 도로명도 보문로에서 '한국관광1번로'로 바꿨다. 보문로 424-1에서 보문로 424-34까지 너비 16m, 길이 325m 구간이다.

25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박성만 도의회 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그리고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보문관광단지의 새로운 관광 명소 출범을 축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준공식 축사에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를 대한민국 관광 성지로 조성한 역사적 비전을 되새기며 미래 대한민국 관광도 경북이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관광역사공원은 보문관광단지와 대한민국 관광 반세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장소"라고 말했다

도와 공사는 올해 공원 일원 산책로 정비와 방문객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포토존 설치, 2025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외국인 관광 안내판 설치 등으로 공원을 보문관광단지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만들을 계획이다. 문정화 기자

포스코그룹 기술나눔 '261건'
특허 71건 기업 53곳 무상이전

포스코그룹이 기술나눔을 통해 기업 53곳에 특허 71건을 무상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그룹은 25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4년 산업부·포스코그룹 기술 나눔 행사'를 가졌다. 포스코그룹은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나눔을 위해 기술 4천276건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특허 814건을 기업 405곳에 무료로 이전했다.

올해에는 총 261건의 기술을 나눔 사업에 제공했고, 이 중 71건의 특허가 53개 기업에 제공됐다.

이번에 이전되는 주요 나눔기술은 석탄을 삽입하는 입구 주변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코크스 오븐의 입구프레임'을 비롯해 거푸집 해체가 불필요한 '내화용 콘크리트 기둥', 분진발생을 방지하는 '마그네슘 제조장치' 등이다. 김웅희 기자

Smiling Dalseo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제18회 달서하프마라톤대회

2024. 9. 29.(일) 08:30 호림강나루공원

교통통제 >> 2024. 9. 29.(일) 07:40~12:00



지점별 주요 우회로

■ 마라톤대회장, 공단내부 주변 출차차량
▶한울상사 맞은편 대기 후 북편(강창역) 또는 동편(계명대역→호림네거리) 방향으로 우회

■ 강창교(다사)→강변도로 진입차량 ▶계명대역→호림네거리
■ 성서체육공원→4차순환선 달세C 진입차량
▶(1) 좌회전→경농 남측 삼거리 유턴→고가도로→달세IC
(2) 우회전→계명대역 네거리→강창교→다사IC

주차장 안내

P1 한국환경공단 대구지사(대형차량 주차가능)
P2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초청인사)
P3 신기술지원센터
P4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동문)
P5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주변도로
P6 일흥산업 서편도로(대회운영 및 자원봉사요원 전용)
P7 신흥버스(초청인사)
P8 KDB 산업은행 성서지점(초청인사)

*행사종료 전에 출차를 원하는 초청인사는 P7, P8 주차장 이용부탁드립니다.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